

‘주축 이탈’ 광주FC, 알짜배기 자원으로 새 판 짠다

**유제호·황재환·진시우 새로 영입
세 선수 모두 20대 초반 젊은 피
성장 가능성 고평가에서 공통점
정호연·이희균·김경재 대체 전망**



주축 선수들이 대거 이탈한 광주FC가 성장 가능성이 큰 알짜배기 자원들을 대거 영입하며 새 판을 짰다. 유제호와 황재환, 진시우 모두 20대 초반의 젊은 피라는 점에서 아시아 무대와 K리그를 병행하는 광주FC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0일 광주FC에 따르면 최근 미드필더 유제호와 공격수 황재환, 수비수 진시우를 연달아 영입했다.

유제호는 2000년생으로 대전시티즌(현 대전하나시티즌) U-18(충남기계고)과 동국대를 나와 수원삼성과 전북현대모터스에서 활약한 중앙 미드필더다. K리그 통산 성적은 50경기에서 1득점.

유제호는 고교 시절 서효원 감독 아래에서 2016 AFC(아시아축구연맹) U-16 챔피언십과 U-17 중국 4개국 친선대회에 출전하는 등 일찌감치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먼저 광주FC에 합류한 박정인과 국가대표팀에서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대학 진학 후에도 유제호는 동국대의 통영기 우승과 태백산기 우승 등 2020년

대학축구연맹전 2관왕의 중심에 섰고 패스와 공 소유, 탈압박, 판단 등 능력을 바탕으로 중원 모든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어 이정호 감독에게는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황재환은 2001년생으로 울산HDFC U-15(현대중)와 U-18(현대고)을 거쳐 프로 무대에 직행한 뒤 독일의 FC 쾰른 2군에서 임대 생활을 한 독특한 이력을 지녔다. 국내 복귀 후에는 울산HDFC와 부천FC1995에서 측면 공격수로 활약하며 K리그 통산 31경기에서 2득점과 1도움을 올렸다.

황재환은 U-14를 시작

으로 U-23까지 연령별 대표팀을 두루 거치며 실력을 입증한 바 있다. 뛰어난 개인기량을 바탕으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자원이요, 강력한 전진성까지 갖춰 기회 창출 능력이 우월하다.

진시우는 2002년생으로 연세대 재학 중 전북현대모터스의 테스트에 합격하며 프로 진출에 성공한 중앙 수비수다. 190cm의 장신으로 최전방 공격수로도 활용할 가능한 멀티 능력을 갖췄다.

진시우는 임대 신분으로 올 시즌을 마

친 뒤 전북현대모터스로 복귀하는 조건으로 광주 유니폼을 입었다.

진시우는 강력한 제공권과 빠른 판단력, 탄탄한 대인 방어를 중심으로 연세대 스리백의 핵심 역할을 맡으며 대학 무대를 주름잡았다. 2023년 제21회 덴소컵 한일 대학 축구경기전에서는 태극마크를 달고 필드를 누비는 기회도 잡았다.

프로 진출 이후 진시우는 전북현대모터스 B팀(현재 전북현대모터스 N팀)에 속하며 K4리그에서 주로 활약했지만 K리그 2세 경기에 나섰고, AFC 챔피언스리그 2도 네 경기를 소화하며 존재감을 알렸다.

진시우는 전북현대 B팀(현재 N팀)에서 주로 활약해 18경기에 출전하는 등 경험을 쌓았으며 K리그1 3경기, ACL2 4경기 등 총 25경기에 출전하며 프로 무대 적응을 마쳤다.

이정호 감독은 유제호와 황재환, 진시우의 영입으로 선수층에 대한 고민을 덜어낼 전망이다. 유제호는 미국 메이저 리그 사커(MLS) 진출이 유력한 정호연, 황재환은 울산HDFC로 떠난 이희균을 대체하고 진시우는 공수에서 허술과 김경재의 공백을 동시에 메울 수 있는 자원이자다.

유제호는 구단을 통해 “광주FC 경기를 보며 좋은 축구를 한다고 항상 느꼈다. 이 팀의 일원이 될 수 있어 기쁘고 영광”이라며 “우리가 원하는 목표는 물론이고 개인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황재환도 “광주FC에서 뭘 수 있게 되어 영광이다. 감독님과 동료들에게 많이 배워 더욱 좋은 선수가 되고 싶다”며 “내가 가진 모든 능력을 동원해 팀에 도움이 되고 싶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진시우 역시 “광주FC에서 활약할 수 있게 되어 설렌다. 팀에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겠다”며 “하루빨리 적응해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개인적으로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KIA 외인 원투펀치, 첫 불펜 투구서 위력 과시

최고 네일 147km·올러 145km



KIA타이거즈 ‘외인 원투펀치’ 제임스 네일과 아담 올러가 스프링 캠프 첫 불펜 투구에서

위력을 과시했다.

KIA는 지난 29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 그레이트 파크 베이스볼 컴플렉스에서 네일과 올러가 첫 불펜 투구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네일과 올러는 각각 29구와 20구를 소화했다. 네일은 포심 패스트볼과 투심 패스트볼, 스윙퍼, 체인지업, 커터 등 다섯 개 구종을 고루 접점했고 최고 시속 147km를 기록했다. 올러는 포심 패스트볼과 커터, 체인지업, 커브, 슬라이더, 슬러브 등 여섯 개 구종을 섞어 던졌고 최고 시속 145km가 찍혔다.

이들의 불펜 투구를 지켜본 정재훈 투수 코치는 호평을 남겼다. 네일과 올러의 컨디션에 대해 긍정적으로 봤고, 향후 개막 일정에 맞춰 차근차근 몸 상태를 구축할 것을 예고했다.

정재훈 코치는 “네일과 올러 모두 몸을 잘 만들어 왔다. 첫 불펜 투구임에도 만족스러운 투구를 보여줬다”며 “올러는 선발 경험이 많아 마운드에서 본인의 루틴도 확실해 보였고 변화구의 각도도 좋았다. 남은 불펜 피칭에서 조금씩 강도를 올려 개막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에 네일은 “비시즌 동안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잘 쉬었다. 틈나는 대로 운동을 하며 스프링 캠프를 준비했다”며 “오늘은 첫 불펜 투구라 구속보다는 제구에 신경 썼고 결과가 만족스럽다. 앞으로 잘 준비해 하루빨리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마운드에 오르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KIA타이거즈 제임스 네일(왼쪽)과 아담 올러가 지난 29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 그레이트 파크 베이스볼 컴플렉스에서 불펜 투구를 실시하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올러 역시 “오늘은 75% 정도의 힘으로 가볍게 던졌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에 차근차근 단계를 밟으려 한다”며

“KBO 리그 공인구는 메이저리그 공인구보다 조금 작은 느낌이지만 내 손 크기와 잘 맞는 것 같아 굉장히 만족스럽다. 다양

한 변화구를 구사하는데도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광주도시공사 女핸드볼, H리그 1라운드 중위권서 마무리

대구시청에 27-26 신승
2승 1무 4패... 5위로 도약

올 시즌 플레이오프 진출을 목표로 하는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이 첫 라운드를 중위권으로 마무리했다. 곧바로 이어지는 2라운드에서는 상위권 도약을 목표로 힘차게 나아가길 전망이다.

오세일 감독이 이끄는 광주도시공사는 30일 서구 빙고체육관에서 열린 대구시청과 신한 SOL Pay 2024-2025 핸드

볼 H리그 여자부 1라운드 7차전에서 27-26 신승을 거뒀다.

이날 승리로 광주도시공사는 1라운드를 2승 1무 4패(승점 5)로 마무리하며 한 경기를 덜 치른 부산시청공단(2승 4패·승점 4)을 제치고 5위(30일 오후 3시 기준)까지 도약했다.

광주도시공사는 1라운드 막바지로 가면서 뒷심이 강해진 모습을 보였다. 직전 경기인 서울시청전에서는 경기 종료 33초를 남겨놓고 정현희의 극적인 돌파 득

점으로 27-27 무승부를 거두며 승점 1점을 추가했다. 이어 대구시청을 상대로는 전반 초반 분위기를 내줬음에도 전반 중반부터 동점과 역전을 거듭하는 접전을 펼쳤고, 전반을 10-12 열세로 마쳤음에도 후반 들어 역전극을 펼쳤다.

광주도시공사는 후반 초반 송혜수와 정현희의 연속 득점으로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고, 한 점씩을 주고받은 뒤 이민지 골키퍼의 3연속 세이브에 이어 김금순의 속공으로 다시 리드를 잡았다.

흐름을 되찾은 광주도시공사는 후반 막판 27-25 리드에서 서아루가 2분간 퇴장을 당하며 위기를 맞았으나 유정원 골키퍼가 노희경의 7m 드로우를 막아냈고, 김희진에게 한 점을 내줬지만 남은 시간을 흘려보내며 한 점 차 승리를 거머쥐었다.

오세일 감독은 이날 경기 후 “초반에 경기가 조금 안 풀렸지만 후반 들어가면서 잘 풀려서 다행이다. 격차를 벌려야 하는 시점에서 실책이 나온 부분들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1라운드를 5위로 마쳤지만 리그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잘 준비해서 올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 9득점 2도움으로 MVP에 선정된 김지현 역시 “그동안 지는 경기가 많았지만 승리할 수 있어 좋았다. 오늘은 자신 있게 하고 싶은 대로 해보자고 한 부분이 주효했다”며 “그동안 제가 해줘야 하는 부분을 해결하지 못해서 부담이 있었지만 오늘을 계기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도시공사는 다음달 2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부산시청공단을 상대로 2라운드에 돌입한다. 광주도시공사는 부산시청공단과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 27-24 승리를 거둔 바 있다. 한규빈 기자